

루마니아 증보기도 24시: 자동차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

빠체 보우어!

동구전선 루마니아에서 문안을 드립니다.

2005 4월에 은퇴하신 두분 선배 목사님께서 루마니아를 다녀가시면서 두 분께서 가지신 자가용과 봉고차를 파셔서 1만 200불을 차량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8200 유로를 주고 2001년 형 35,000km 1.9 디젤 차를 500km나 떨어진 루마니아 북쪽 지방에 가서 차를 구입했었습니다. 차량 헌금을 해주셨던 두분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두분 목사님을 많이 많이 그리워하면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지칠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었던 기동력 사역의 동반자 Volkswagen Golf를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지난 6월 2일은 Volkswagen Touran 중고차를 아버지께서 다시 갯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 기동력 사역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차량 헌금 1만불을 보내주셨고 이근백 장로님께서도 1천불을 보내주셨고 임시창 목사님께서도 5백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캄보디아 6개월 인턴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딸 쇼냐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히 모은 280 유로를 차량 헌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차량 헌금으로 10700유로가 모아졌습니다. 한달 전부터 중고차 시장을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뒤졌습니다. 가격은 1만 유로, 년도는 2011-2012년 형 그리고 10-12만 km 중고차를 찾았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5월 30일날 철야기도를 마치고 새벽 4시 반에 인터넷 차량을 잠시 뒤졌는데 빠떼쉬띠(Pitesti)라는 도시(교회에서 200km)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차를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2012년 형, 디젤, 모토 1968cm3(파워 140cp/ 103kw), 가격은 10990 유로. 선착순으로 전화를 걸기 위하여 자는중 마는중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고 가격을 깎아 달라고 했더니 200유로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서 못올라가고 화요일날 사러 간다고 알렸습니다. 차주인이 두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차를 살 사람이 한사람 온다며 화요일날 사러 올것인지를 확인차 전화

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철야기도회를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잘 마치고 화요일 새벽 첫차 시외버스를 타고 수도 부카레스트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시모나(며느리)가 졸업 시험과 논문으로 바쁜데 화요일은 시간을 낼수가 있다고 해서 시모나(며느리)를 만나서 시외버스를 타고 빼빼쉬띠로 갔습니다. 차주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가진돈이 1만 7백유로인데 파실거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부지! 어쩌면 이리도 정확하게 가격을 마치실수가 있는지요. 역시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한숨도 못자서 졸음이 육체적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했지만 차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피곤함도 졸음도 사라지고 며느리랑 둘이서 차 자량을 해가면서 웃음꽃이 차안에 활짝 피었습니다. 블루투스를 며느리가 연결을 하니까 핸들에서 전화기 버튼만 누르면 전화번호가 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통화할수가 있습니다. "하 신기하다 신기해" 촌놈이 하루 아침에 즐지에 출세를 한겁니다. 네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서 며느리가 작동을 시켰는데 지도를 잘 볼줄도 모르는 촌놈이 하나같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신기하고 잘 사용할줄도 모르는 기능들이 많아서 정신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오면 차가 저절로 시동이 꺼지고 클러치를 밟으면 다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린다는데 촌놈이 괜히 신호등 앞에서 버벅덜까봐 겁이 나서 사용을 안하기로 며느리랑 합의를 하고서 플레이 오프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시동네에 삶에 허우적 거리는 집시들을 바라보니 선교사가 이처럼 호화찬란한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넌 양심에 찢림도 없냐"라는 질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6명의 양자 삼은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를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도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여쭙었습니다. "아부지! 이처럼 좋은 차를 선교사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지질이도 못사는 집시 아들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했더니 "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것만 증거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 들어가기전에 용기백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쇼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근백 장로님과 임시창 목사님께도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루마니아를 가슴에 품고 불철주야 가슴으로 무릎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함께 레슬링 하여 주시는 중보기도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의 삶으로 평생 복음에 빛진자되어서 중보기도 식구들로부터 받은 이모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으니 진지를 사수함으로 그 빛을 다 갚을 것을 아버지께 약속드려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8일은 루마니아 차량 번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예약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은 6월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독일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5 차량등록 세금을 100유로 정도 내고 절차를 끝내면 2주 후에는 루마니아 차량 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차량 번호 이름을 GOD(하나님) 이라고 붙이기로 했습니다. 예상 차량 번호는 **B ??(두자리 숫자) GOD** 이 되겠습니다.

제 평생에 중고차 3대를 아버지가 주셨는데 첫차는 1993년에 스위스 피터 형제가 기증한 Opel Kadet로 8년된 차를 2700불주고 스위스에서 직접 자기가 사가지고 영국 벌머쓰까지 와서 이삿짐과 우리 가족을 실고 루마니아 선교지까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준 차였습니다. 12년을 저희들과 함께 살다가 집시교회 지도자

에게 주었습니다.

두번째 차는 2005년에 두분 선배 목사님들로 부터 기증받은 2001년 형 Volkswagen Golf 중고차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기증받은 차는 Volkswagen Touran 2012형 차입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루마니아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함께 동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ouran 파트너 화이팅을 외치며 동구전선 루마니아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에서 문안을 마칩니다.

중보기도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